

챗 GPT 이대로 활용

202310296 남연우

1. 서론

서울의 한 사립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장모(25)씨는 4월 중순에 전공 과목 중간고사를 보았다. 오픈북 방식의 시험이었는데, 챗GPT가 알려준 답을 그대로 적어내기도 80명 중 22등을 한 것이다. 장씨는 “취업 준비에 바빠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챗GPT를 썼다”며 “챗GPT가 존댓말로 답변해 준 걸 ‘했다’ 등으로 문장이 끝나게 손보고, 어색한 표현 몇 개 고쳤는데 성적이 잘 나와 너무 놀랐다”고 했다. 그는 “수업을 매번 열심히 듣고 논문과 기사까지 찾아 읽어 시험 친 친구는 24등을 해 양심에 걸렸지만, 교수님이 챗GPT 사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다음에도 쓸 생각”이라고 했다. 대학가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교육 당국과 대부분의 대학이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챗GPT를 사용한 일부 학생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후기를 공공연히 남기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챗GPT 활용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 당국이나 대학은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8월 교육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원칙을 만들어 발표하긴 했는데 여기에 챗GPT 내용은 없다”며 “챗GPT를 비롯해 올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 교내 챗 GPT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옳은가? 에 대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2가지 근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반론, 재반론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2.본론

2.1 미래에 중요한 챗GPT

챗 GPT를 활용하는 능력은 앞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챗GPT가 인공지능 기술의 한 분야인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검색, 대화형 챗봇, 자동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챗 GPT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확장된 접근성,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발굴, 개인화된 지원과 맞춤형 가이드, 그리고 시간과 노력의 절약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챗GPT를 활용한 AI 글쓰기도 점차 보급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챗 GP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챗 GPT 활용 능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오토 GPT는 챗 GPT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용자가 목표를 설정하면 인터넷을 검색하고 방법을 탐구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완전한 AGI(인공 일반 지능)가 아닌 챗GPT의 단점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오토 GPT는 사용자의 목표를 설정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1)

1) “오토 GPT등장 : 챗 GPT를 뛰어넘은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 엔드오버경이 블로그, 2023년 4월 22일 입력, 2023년 5월 25일 접속, <https://m.blog.naver.com/tksgk22/223081545461>

2.2 학교 내 챗 GPT활용의 필요성

저는 챗 GPT를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우선 챗 GPT는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이며,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질문하거나 의견을 표현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챗 GPT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욱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개인적인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챗 GPT를 활용해 과제를 대필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챗 GPT가 작성한 글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도도 있다.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 중인 에드워드 태안이 만든 'GPT 제로',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크리스토퍼 매닝 교수와 첼시 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디텍트 GPT', 오픈AI(OpenAI)가 무료로 공개한 '클래시파이어(Classifier)' 등이 있다.

클래시파이어의 경우 AI가 쓴 글 중에서 26% 정도만 AI의 것으로 교수 입장에서는 챗 GPT로 과제를 대필하려는 학생들을 견제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²⁾

3. 반론/재반론

3.1 반론

저는 "청소년 시기에 습득해야 할 기초 역량을 배우는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학생의 창의력에 방해가 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제를 하다 보면, 자신도 언젠간 자신만의 방법 없이 평범하고 딱딱한 느낌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 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달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다른 의견을 듣고 내 의견과 비교하면서 개선해 알아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학생은 그런 면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을 하다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통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챗GPT의 사용을 금지했다. 학교 과제를 챗 GPT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다. 학생이 직접 작성한 리포트보다 챗 GPT를 활용한 리포트가 더 훌륭하며, 학생의 글쓰기 실력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시험문제도 훌륭하게 통과할 정도의 실력을 자랑하는 챗 GPT는 매일 사용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결합될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³⁾

3.2 재반론

2) 정은아, "챗GPT와 함께 떠오르는 AI윤리 문제, 국내 대학에서는?", UNN뉴스, 2023년 3월 7일 작성, 2023년 5월 26일 접속,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2895>

3) 김자미, "챗GP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교육신문, 2023년 3월 6일 작성, 2023년 5월 26일 접속, <https://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98304>

챗 GPT가 현재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처럼 특별히 위법하거나 위험한 것도 아닌데 굳이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에 녹아든 기술들한테 Chat GPT를 금지해서 몰래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학교에서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또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나온 말을 참고하여 새롭게 세워갈 수 있으며 전체를 다 베껴서 과제로 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의 참고만 해가며 자신이 찾은 것을 응용하여 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검색 플랫폼에 있는 질문 기능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학생들이 있기에 CHAT GPT를 사용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서서 교육부 사무관은 “생각한 인공지능이랑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윤리 원칙이긴 하지만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지만 원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거나 과제 활용에 챗 GPT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⁴⁾

4. 결론

챗 GPT의 활용은 지식과 정보의 접근성 개선, 개인화된 경험 제공, 업무 효율성 향상, 창의성과 혁신의 도구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인간과 기술의 상호보완을 강조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사고, 정서적인 소통, 순발력과 대처력은 AI가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물론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에게 있어 완전히 안전한 일자리란 없겠지만 적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는 명확해진다. 먼 미래보다 가까운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챗 GPT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챗 GPT가 빠르게 발전되어도 세상을 끌어나가는 건 사람이다. 기계와 공존, 협력하는 미래 사회에선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율하고 보살피는 인간 자신의 능력이 곧 경쟁력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평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문하는 습관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창의적인 생각을 부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인 상호작용에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기계와 소통이 일상화될수록 사람 간의 정서적 소통 역량은 자신의 능력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보완하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의 가치와 판단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챗 GPT를 활용하고, 기술의 한계와 윤리적 고려를 고려하여 인간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미래에는 챗GPT가 더 나은 대화 및 이해능력, 개인화된 경험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할 것이다.

5. 참고문헌

김주현, “학교에서 챗(Chat)GPT 활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쿨잼 브이로그
2023년 3월 24일 작성, 2023년 5월 18일 접속
<https://m.blog.naver.com/naverschool/223054586077>

오주비, 양승수, 고유찬 “챗GPT 답대로 발표... 교수는 “아주 꼼꼼” 칭찬“ 조선일보
2023년 5월 13일 작성, 2023년, 5월 18일 접속

4)장아영, “챗GPT 포럼 연 교육부...”막지 말고 활용법 연구해야”, YTN뉴스, 2023년 2월 14일 작성, 2023년 5월 26일 접속,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49420?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63407?sid=102>